



강북구의회
GYEONGBUK DISTRICT COUNCIL

의정활동보도

2014년 12월 1일
(월요일)

서울포스트 8면

강북구의회 역량강화로 선진의회 참모습 구현

연구하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 돋보여

강북구의회(의장 김동식)는 지난 28일 오전10시 신관2층 접견실에서 한동진 의원, 유인애 의원, 이정식 의원, 김명숙 의원이 모인 자리에서 2015년도 예산심의에 앞서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은 오는 12월 1일 열리는 강북구의회 제184회 정례회에 대비해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확보를 통해 지방자치 수준을 한 단계 도약시키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구의회 전문위원을 강사로 하여 규정 주요업무와 연계한 예산안 심사 기법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의원들은 평소 의문사항이나 궁금

사항에 대해 상호간에 공유하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의미있는 자리였으며,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강북구의회는 한동진 의원을 비롯, 유인애 의원, 이정식 의원, 김명숙 의원의 초선의원들과 ‘공부하는 의회’ 열풍으로 연구하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강북구의회 2015년도 예산안 심의는 다음달 개최하는 제184회 제2차 정례회에 기간 중에 다룰 예정이다.

이날 참석한 의원들은 “구의원 스스로가 실무능력과 전문성을 높이고 이를 의정활동에 녹여 내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며, 구민의

혈세가 강북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면밀하고 꼼꼼한 예산심의에 임할 것을 다짐하며, 제7대 의회에서 더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 선진의회 참모습으로 구민들의 행복한 강북구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장동우 부의장은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한 연장선상에서 이 자리가 마련되었으며, 특히 정례회를 앞두고 가장 중요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둔 시점에서 실시되는 만큼, 오늘 습득한 노하우를 토대로 내실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참석한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지역연합신문 5면

강북구의회 역량강화를 위한 특강

구의회 전문위원을 강사로 초빙 예산안 심사 관련 의문사항 해소

강북구의회(의장 김동식)는 28일 신관2층 접견실에서 한동진, 유인애, 이정식, 김명숙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은 12월 1일 열리는 강북구의회 제184회 정례회에 대비해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확보를 통해 지방자치 수준을 한 단계 도약시키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예산안 심사를 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사는 구의회 전문위원이 맡았다.

특강은 참석 의원들이 제안한 것으로 초선 의원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하는 한 방편으로 준비됐다.

참석 의원들은 규정 주요업무와 연계한 예산안 심사 기법에 대해 평소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상호 공유하고 해소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으며,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열린 준비 속에 강북구의회 2015년도 예산안 심의는 제184회 제2차 정례회에 기간 중에 다룰 예정이다.

이날 참석한 의원들은 “구의원 스스로가 실무



능력과 전문성을 높이고 이를 의정활동에 녹여 내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며, 구민의 혈세가 강북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면밀하고 꼼꼼한 예산심의에 임할 것을 다짐하며, 제7대 의회에서 더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 선진의회 참모습으로 구민들이 행복한 강북구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장동우 부의장은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한 연장선상에서 이 자리가 마련되었으며, 특히 정례회를 앞두고 가장 중요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둔 시점에서 실시되는 만큼 오늘 습득한 노하우를 토대로 내실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참석한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윤은자 기자 yej388@naver.com

강북구의회, 의원 역량강화 위한 특강

예산안 심사 기법에 대해 평소 의문사항에 대해 상호간에 공유하고 해소하는 의미 있는 자리

강북구의회(의장 김동식)는 지난 11월 28일 오전 10시 신관 2층 접견실에서 한동진 의원, 유인애 의원, 이정식 의원, 김명숙 의원이 한자리에 모여 2015년도 예산심의에 앞서 의원 역량강화를 위해 실제적인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되는 특강을 실시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특강은 오는 12월 1일 열리는 강북구의회 제184회 정례회에 대비해서 의정 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확보를 통해 지방 자치 수준을 한 단계 도약시키고 전문적

이고 체계적인 예산안 심사를 하기 위해서 구의회 전문위원을 강사로 하여 규정 주요업무와 연계한 예산안 심사 기법에 대해 평소 의문사항이나 궁금 사항에 대해 상호간에 공유하고 해소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으며,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는 강북구 의회 내에서 한동진 의원, 유인애 의원, 이정식 의원, 김명숙 의원이 제안을 해서 조선의원들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의회’ 열풍이 새롭게 불고 있고, 강북구의회가 연구하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와 같이 공부하는 모습은 흐트러지기 쉬운 의회분위기를 바로잡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열편 준비 속에 강북구의회 2015년도 예산안 심의는 다음달 개최하는 제184회 제2차 정례회에 기간 중에 다룰 예정이다.

이날 참석한 의원들은 “구의원 스스로가 실무능력과 전문성을 높이고 이를 의정활동에 녹여 내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며, 국민의 혈세가 강북의 발전과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면밀하고 꼼꼼한 예산심의에 임할 것을 다짐하며, 제7대 의회에서도 더욱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나가 선진의회로 참모습으로 국민들의 행복한 강북구를 만드는데 앞장 서겠다” 고 말했다.

장동우 부의장은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한 연장선상에서 이 자리가 마련되었으며, 특히 정례회를 앞두고 가장 중요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둔 시점에서 실시되는 만큼, 오늘 습득한 노하우를 토대로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참석한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강북신문 5면



한동진 의원을 비롯, 유인애 의원, 이정식 의원, 김명숙 의원이 전문위원들과 함께 예산심의에 대해 공부를 하고 있다.

강북구의회 역량강화위한 특강 실시

28일 규정 예산안 심사 기법에 대한 설명 들어

강북구의회 한동진 의원, 유인애 의원, 이정식 의원, 김명숙 의원 등은 28일 오전 10시 신관 2층 접견실에서 구의회 사무국 전문위원 등과 예산심의와 관련된 특별한 수업을 함께 했다.

이번 특강은 오는 12월 1일 열리는 강북구의회 제184회 정례회를 대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구의회 전문위원을 강사로 하여 규정 주요업무와 연계한 예산안 심사 기법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의원들은 평소 의문사항이나 궁금 사항에 대해 상호간에 공유하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의미있는 자리였으며,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강북구의회는 한동진 의원을 비롯, 유인애 의원, 이정식 의원, 김명

숙 의원의 조선의원들과 ‘공부하는 의회’ 열풍으로 연구하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와 같이 공부하는 모습은 흐트러지기 쉬운 의회분위기를 바로잡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강북구의회 2015년도 예산안 심의는 다음달 개최하는 제184회 제2차 정례회에 기간 중에 다룰 예정이다.

이날 장동우 부의장은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한 연장선상에서 이 자리가 마련됐으며, 특히 정례회를 앞두고 가장 중요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둔 시점에서 실시되는 만큼, 오늘 습득한 노하우를 토대로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참석한 의원들에게 당부했다.